



최근 농산물의 안전성을 불모로 한 상업적 이기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안전식품을 섭취하려는 소비자의 욕구에 편승한 이런 행태는 우리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마져 되고 있다.

농약 쓰고도 '무농약' 과대광고 식품본부, 남양유업에 시정명령

지난 8월초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남양유업(주)의 이유식 '스텝리

전트'의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스텝리전트를 만들면서 곡물 10가지중 5가지만 유기농업 원료를 썼음에도 "농약을 절대 쓰지않은 원료만 썼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했기 때문.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일부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절대 쓰지 않았다고 과대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남양유업은 중앙일간신문들에 낸

가짜 유기농산물 공해인가 무공해인가

안전성 불모로 한 상업적 이기주의

소비자 기만, 우리농산물 불신만 조장



이유식 스탬프리전트 광고에서 “농약을 절대 쓰지 않는 유기농법 …” “조금이라도 농약을 썼다면 …” “유기농법은 유기합성농약 … 등을 쓰지 않고 …” 등의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좀 비싸더라도 자기제품의 구매의욕을 돋구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결국 이같은 광고행태는 자기들 제품만 안전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농산물은 마치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불신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과대광고 시정명령을 받은 직후 남양유업은 “스탬프리전트에 들어있는 현미, 보리, 기장, 야채는 농약을 절대 쓰지 않은 …”으로 바꾸어 광고하고 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자사제품을 알리기 위해 광고하는 것이야 나무랄 수 없겠지만 ‘과장되더라도 일단 욕심껏 광고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때가서 시정한다’는 알뜰한 상업적 저의가 의심되기도 한다.

‘유기농산물’ 일반농산물과 차이 없다 풀무원식품등 채소류서 농약검출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흔은 다른 식품업체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6월초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발표에 따르면 풀무원식품에서 유기재배한 고추, 오이, 깻잎과 한농야채에서 유기재배한 고추에서 각각 농약이 검출됐

다.

깻잎의 경우 일반재배한 채소류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기재배한 풀무원의 깻잎에서는 농약이 검출됐다.

시민의 모임이 분석의뢰한 검사 대상 채소류 26점(일반재배 17점, 유기재배 9점)중 절반이 넘는 15점에서 농약이 검출됐으나 잔류허용기준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기재배한 채소류 9점중 5점에서 농약이 검출돼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무공해로 믿어온 소비자들은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야 했다.

유기재배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업체들이 그동안 유기재배 농산물은 1등상품이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적절한 농약사용으로 병해충을 방제하여 생산한 품질좋은 일반농

산물은 마치 2등상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온 점도 없지 않은데다 조사결과에서도 비싼 값에 팔고 있는 유기재배 채소나 일반재배 채소가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팔당 유기농산물서도 농약검출 농민, 기준소과로 품질인증 취소

한편 팔당 유기농산물에서도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검사소 경기도지소에 따르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경기 남양주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4개 유기농작목반이 생산한 깻잎·상추·파등 28종의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북한강·운길산·유기농업운동본부 조안지회등 3개 작목반에서 생산한 8개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소비자가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 명	단 위	유기농산물		일 반 농산물
		생엽	백화점	
시금치	300g	800원	1,350원	450원
상추	200g	700원	1,400원	550원
양파	1kg	1,000원	3,000원	428원
숙갓	200g	700원	940원	1,250원
근대	300g	800원	2,000원	1,140원
무	1개	600원	800원	720원
감자	2kg	2,600원	3,700원	2,800원
고구마	2kg	3,400원	4,280원	2,400원
콩나물	300g	700원	900원	360원
토마토	1kg	2,000원	4,500원	
유정란	30알	4,500원	5,100원	3,000원
백미	8kg	22,000원	30,000원	18,600원



더우기 이번 조사결과 깻잎, 신립 초, 방울토마토, 파, 얼갈이 배추, 열무 등에서 고시가 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됐다. 농약을 쓰지 않는다고 선전하는 유기농산물에서 이같은 농약이 검출된 것은 결국 믿고 사먹어 온 소비자를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검사소는 유기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한 이들 작목 반증 북한산·운길산 2개 작목반의 품질인증을 5년간 취소하는 한편 조안지회 작목반에 대해 3개월간 인증표시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기농산물 가격 턱없이 비싸 일반농산물보다 최고 7배까지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과 차이가 없음에도 최고 7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종숙 박사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이 팔고 있는 유기농산물 값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판매되는 유기농산물보다 최고 3배나 비싸고, 또 일반농산물에 비해 최고 7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와 같이,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양파의 경우 생협을 거

쳐 유통되는 가격은 kg당 1천원인데 비해 백화점에서는 3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반재배 양파값이 4백28원인 것과 비교해서는 무려 7배나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

시금치도 일반농산물이 3백에 4백50원이고, 생협이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유기재배 시금치 가격은 8백원인 반면 백화점은 같은 유기재배 시금치를 1천3백5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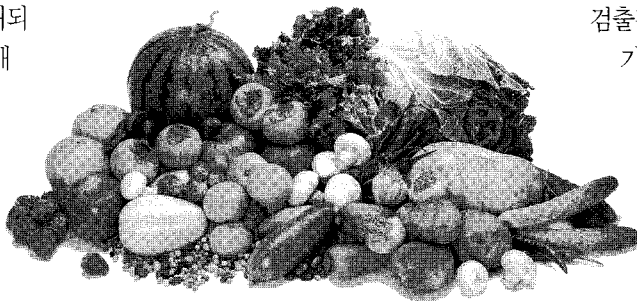
한편 생협을 거쳐 유통되는 유기농산물도 일반농산물에 비해 최고 2배에서 최저 20% 가량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에 있어서 만큼은 온 국민이 소비자이다. 99% 이상의 우리농민이 기준을 지킨 노력 덕분에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농산물은 온 국민이 소비자 상업적 이기주의의 불신만 조장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잔류분 석 결과 유기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이 전혀 차이가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전하는 유기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결국 유기농산물이란 것이 속과 겉이 같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유기농산물가격은 일반농산물보다 몇배나 비싸다.

농산물 생산에 있



가짜 유기농산물 공해인가 무공해인가

어 농약사용은 필수적이다. 작물을 가해하는 병해충은 적절히 방제하지 않으면 수량손실이 클 뿐 아니라 상품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다. 쌀만 보더라도 병해충을 방제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손실이 1년에 4백만 명의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양에 달한다.

농산물에 있어서 만큼은 온 국민이 소비자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10% 정도이다. 1명의 농민이 10명의 국민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이 전체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재배 면적으로나 생산량으로나 농가수로 봐서도 어느것 하나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1%에 못미치는 양의 농산물이 전국의 백화점이나 농산물직판장등 대형 식품점에서 팔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유식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된다는 얘기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절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유기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여러기관의 조사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름만 유기농산물인 것은 아닐까?

소비자들은 늘 불안하다. 기준치 초과 유무를 떠나 검출됐다는 보도만 봐도 꺼림칙하다. 잔류허용기준은 무엇이며, 기준치 미만이면 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이런 속에서 대다수의 우리농민들이 기준을 지킨 '노력'은 늘 가려져 왔고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해왔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몇몇 식품업체들이 이런 현실을 그들의 판매전략에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농산물의 안전성을 불모로한 상업적 이기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절대로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다는 모기업의 제품이 사실과 달라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불모로 한 상업적 이기주의, 가짜 유기농산물은 공해인가? 무공해인가? **농약정보**